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3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광물자원팀 황의덕 팀장 (2110-5448), 김상우 사무관(2110-5435)		

10년 광물 자주개발률
6대 전략광물 27%, 新전략광물 8.5% 달성

- 新전략광물(희토류, 리튬) 자주개발률 목표 초과 달성 -

- 투자규모는 26억불로 사상 최고치 경신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가 최종 집계한 해외자원개발 실적에 따르면 **'10년도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27%** 달성

○ 아울러, **新 전략광물(리튬, 희토류)** 자주개발률은 당초 목표인 5.5% 대비 3%p **초과 달성**한 **8.5%** 기록

□ 작년 광물자원개발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 규모인 **2,640백만불**로 **전년**(1,026백만불) **대비 157% 상승**하였으며,

○ **신규진출 사업수는 43개**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現 정부 들어 국가 위험도가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지역 진출 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임

□ 투자 회수액은 **553백만불로서** '09년 397백만불 대비 **39%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점진적 증가 추세**

□ '10년은 자주개발률·투자금액·투자회수액 등 **해외 광물자원 개발 분야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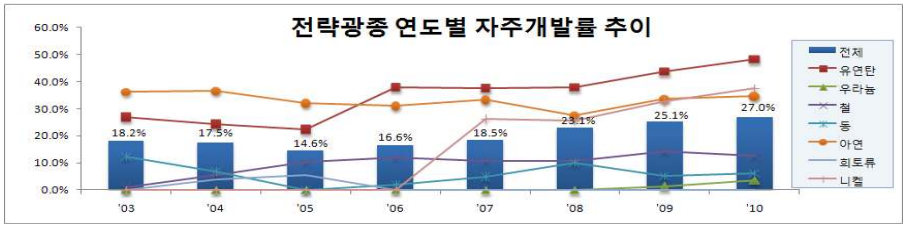
○ 중남미·아프리카 **신규진출을 통한 지역다변화**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 등 **질적 성장**도 두드러진 해

1. 10년 자주개발률 실적

□ **'10년도 광물 자주개발률은 6대 전략광물**이 **27.0%, 新전략광물은 8.5%**를 달성

* 자주개발률 = 자주개발액 / 수입액 × 100 (%)

○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량**은 기존사업 생산진입과 증산, 신규 생산사업 진출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량 증가폭**도 커 자주개발률은 **소폭 상승**



○ **新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8.5%**로 **목표대비(5.5%) 3.0%p 초과 달성** 하였고, **기존사업**(서안맥슨 희토류)의 생산량 증가(39%)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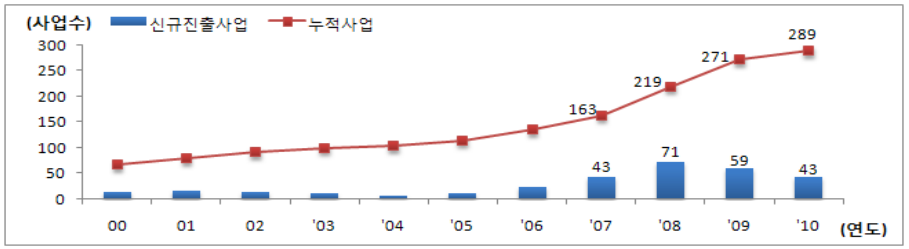
2. 사업진출 현황

□ **(총괄) '10년 신규진출 사업수**는 **43개**로 전년(59개) 대비 **27% 감소**하는 등 그간 증가세였던 신규 사업수는 **'08년 이후 감소 추세**

* 해외광물자원 신규 진출사업수(개) : ('07)43 → ('08)71 → ('09)59 → ('10) 43

○ 77년 이후 **총 37광종·58개국·419개 사업에 진출**, 130개 사업이 종료신고 되어 **유효신고 사업수는 289개**

< 사업진출 수 >



□ **(지역별)** 유효신고사업 289개 중 아시아·대양주 사업비중이 여전히 높으나(52%), **現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국가 위험도가 높은 신흥지역인 **아프리카·중남미 진출사업 증가 추세**

○ 아프리카·중남미 진출사업 중 **56% 이상이 '08년 이후 신규 진출한 사업***으로 **지역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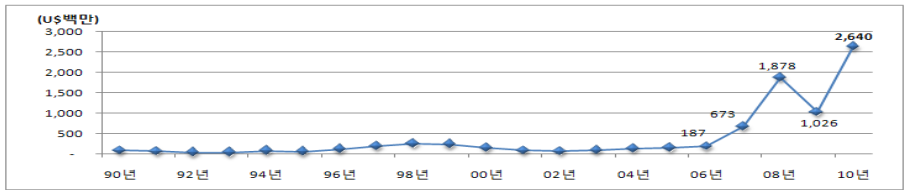
* 아프리카 : 25개중 17개(56.0%), 중남미 : 32개중 18개(56.3%)

□ **(광종별)** 유효사업 중 6대 **전략광물 사업수는 154개**(53%), **희유금속**은 광물공사를 중심으로 한 **신규 9개 사업**을 포함, **전체 41개의 사업**(14%)을 진행 중

3. 투자현황

□ **(총괄)** 투자액은 '07년부터 광물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추세이며, '10년 들어 **역대 최고 규모인 2,640백만불** 달성 (전년대비 157%↑)

< 연도별 투자액 변동추이 >



□ **(지역별) 대양주** 투자비중이 **총 투자의 33%**에 달해 여전히 높으나, **중남미(32%)**투자는 증가하여 **아시아(22%)지역 투자비중 상회**

○ '10년 **중남미 투자액은 8.3억불**로 **전년대비 약 64배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는 51% 감소**하여 **투자 확대가 시급**

* '10년 아프리카 투자는 암바토비(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할 경우 투자 실적 미비

< 지역별 '10년 투자실적 및 전년대비 증감률(U$백만불) >

구분	대양주	동남아	아프카	중남미	중앙아	북미	동북아	기타	합계
'09년	134	182	529	13	60	75	34	–	1,026
'10년	882	555	259	830	19	74	5	16	2,640
증감률(%)	558	205	△51	6285	△68	△1	△85	16	157

□ **(광종별)** 한전·포스코 등 **실수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유연탄(43%), 철광(39%)**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리튬**(2개)·**희토류**(3개) **신규사업은 5개** 확보

* 희토류 : 포두영산(중국), 무시가이(몽골), 할젠브르겟다(몽골), 리튬 엔엑스우노(칠레), 살테비다(아르헨)

□ **(공공·민간비교)** 공기업의 **10년 투자액은 1,248백만불**로 전체 투자 규모(2,640백만불) 대비 **47%** 차지

(단위 : U$백만)

구분	~'04	'05	'06	'07	'08	'09	'10	계
공기업	122	20	45	160	262	648	1,248	**2,506**
민간	1,852	134	141	513	1,616	379	1,391	**6,026**
총계	1,975	154	187	673	1,878	1,026	2,640	**8,532**

□ **(단계별)** 대형 **탐사·생산사업 지분인수**로 전년대비 탐사(7배), **생산**(5배)단계 사업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개발 단계는 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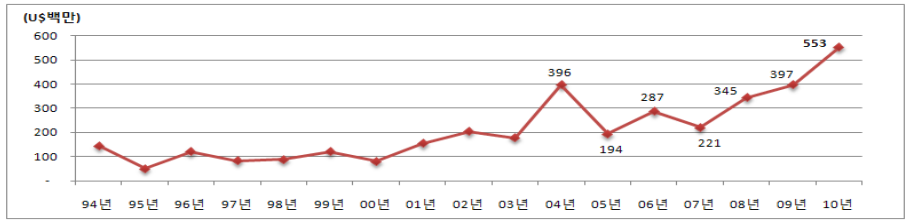
4. 투자 회수실적

□ 작년 투자 회수액*은 **553백만불로서** '09년 397백만불 대비 **39%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증가 추세**

* 회수액: 현지법인이익·배당금 등의 지분투자수익, 대부투자 원리금/이자상환금 등

○ '10년은 광물가격 상승으로 유연탄광 및 철광 사업의 **판매 및 배당금 수익 증가**에 의한 **회수 증가**

< 연도별 회수액 변동추이 >



5. 지역 다변화 및 국제적 공조 노력 강화

□ ‘10년은 자주개발률·투자금액·투자회수액 등 **해외 광물자원 개발 분야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 중남미·아프리카 **신규진출을 통한 지역다변화**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 등 **질적 성장**도 두드러진 해

□ 특히, 작년은 유연탄, 철광의 전략광종을 사용하는 **한전·포스코 등 수요기업의 상류**(Upstream)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아울러, **광물공사**는 칠레 **NX 우노 리튬** 본계약을 체결하고,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리튬사업** 및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 개발사업에 진출하는 등 **新전략광물 확보를 가속화**하였고,

○ 미국 **로즈몬트 동광**,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사업 등 **자주개발 실적이 부진한 광종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추진

□ 한편, 중국의 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에서 비롯, 희유금속 전반의 수급 불안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장·단기 대책 마련**을 통해 **적기 대응**

* 국내 광산 再평가, 도시광산 사업 추진 및 대체물질 기술개발비축 확대

○ 아울러, 정부는 新전략광물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 노력을 추진**하였고, **‘희토류 확보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등 **장기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

□ ‘11년에도 정부는 6대 전략광종 및 新전략광물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의 국내 협력**, **주요 부존국과의 국제 협력** 등의 노력을 강화할 계획

참고 **연도별 자주개발율**

(단위 : U$백만)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유연탄 (백만톤)	수입량	65.3	72.0	69.3	74.6	82.8	93.6	96.5	111.2
	(금액)	(2,266)	(3,891)	(4,803)	(4,844)	(5,830)	(11,369)	(9,215)	(11,837)
	자주개발량	17.5	17.5	15.4	28.4	31.2	35.4	42.1	53.7
	(금액)	(607)	(943)	(1,065)	(1,843)	(2,196)	(4,304)	(4,024)	(5,719)
	자주개발률	26.8%	24.2%	22.2%	38.0%	37.7%	37.9%	43.7%	48.3%
우라늄 (톤U)	수입량	3,506	3,234	4,546	3,842	3,016	5,202	3,964	3,987
	(금액)	(292)	(94)	(160)	(184)	(522)	(747)	(598)	(376)
	자주개발량							45.6	134.8
	(금액)							(4.1)	(12.7)
	자주개발률	-	-	-	-	-	-	1.1%	3.4%
철 광 (백만톤)	수입량	43.1	44.2	43.5	43.9	46.2	49.5	42.1	56.3
	(금액)	(1,085)	(1,377)	(1,928)	(2,377)	(2,856)	(4,846)	(3,538)	(6,646)
	자주개발량	0.4	2.5	4.5	5.2	4.9	5.2	6.0	9.3
	(금액)	(9)	(78)	(201)	(282)	(306)	(509)	(502)	(1,096)
	자주개발률	0.8%	5.6%	10.4%	11.8%	10.7%	10.5%	14.2%	16.5%
동 (천톤)	수입량	933	977	925	953	941	959	1,061	1,028
	(금액)	(1,786)	(2,780)	(3,462)	(6,479)	(7,194)	(7,022)	(5,997)	(7,900)
	자주개발량	114	67	1	19	43.9	96.1	54.2	61.3
	(금액)	(217)	(200)	(4)	(166)	(470)	(829)	(356)	(538)
	자주개발률	12.3%	6.9%	0.1%	2.0%	4.7%	10.0%	5.1%	6.0%
아 연 (천톤)	수입량	786	761	765	779	787	877	800	849
	(금액)	(401)	(488)	(653)	(1,736)	(1,793)	(1,105)	(845)	(1,237)
	자주개발량	285	279	244	241	261.5	242.4	270	274
	(금액)	(237)	(300)	(334)	(704)	(846)	(484)	(421)	(566)
	자주개발률	36.3%	36.7%	31.9%	31.0%	33.2%	27.6%	33.8%	32.3%
니 켈[1] (천톤)	수입량	116	127	112	117	89	96	109	121
	(금액)	(1,047)	(1,718)	(1,764)	(2,373)	(3,014)	(1,876)	(1,309)	(2,034)
	자주개발량					23.1	24.7	35.7	44.6
	(금액)					(117)	(90)	(95)	(176)
	자주개발률				-	26.1%	25.7%	32.6%	36.8%
계	총수입액	5,862	8,665	11,036	17,994	21,209	26,965	21,502	30,031
	자주개발액	1,070	1,521	1,610	2,995	3,935	6,216	5,402	8,108
	자주개발률	**18.2%**	**17.5%**	**14.6%**	**16.6%**	**18.5%**	**23.1%**	**25.1%**	**27.0%**

1) 정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전략광종 변경(‘06) : 희토류 → 니켈